

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와 방제 활동

서종철 (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)

1. 사고 발생 현황

사고 일시 : 2007. 12. 7. 07:06경

사고 장소 :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

사고 경위 : 예인선단(예인선 2척+ 바지선)과 유조선(허베이스피리트호)이 충돌

유출원유량 : 12,547kl(약 10,900톤)

2. 피해 범위

이북면 만대리~근흥면 파도리 : 자갈밭, 암반 및 방파제에 검은색 유막 부분 부착
구름포, 학암포, 구례포, 만리포, 백리포 등 모래·자갈 오염지역 지면하 유층 부분 침투

태안군, 보령시 도서지역 부분적 타르 부착 : 호도, 내파수도, 삼시도, 외연도
전남·북 도서지역 경화된 타르 부분적 부착 : 42개 도서 중 19개 도서

3. 피해 현황

생태계 피해

- 사고 해역은 '태안 해안국립공원'의 북쪽 절반에 해당됨.
- 천연기념물과 생태·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두리 해변과 해안사구가 포함됨.
-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, 노랑부리백로 등의 철새가 도래함.



- 바다 속 플랑크톤부터 육지의 조류(鳥類)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
- 해양 생물 : 산소와 햇빛 차단으로 어패류와 부착생물 등의 폐사
- 조류 : 논병아리, 오리류, 가마우지류, 갈매기류 등 해양/연안습지중에 집중
- 간접 피해 예상 : 모래해안에서 취식하는 큰고니, 말뚝가리 등 멸종위기종

경제적 피해

- 갯벌에 위치한 굴, 바지락, 김 등의 양식장 피해

- 기름이 상륙한 태안군의 갯벌은 면적이 약 100km² 정도임.
- 갯벌의 가치를 39억/1km²로 추정하면, 연간 피해액은 3900억 원에 이름.
-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(IOPC) 추정액 : 최소 5385억 원에서 최대 5735억 원임.
- 분야별 피해액은 방제활동 비용 1345억 원, 수산양식 피해 2060억 원, 관광산업 피해 980억~2330억 원임.

기타

- 유화제의 사용으로 인한 2차 오염 유발 우려

4. 피해복구 과정에서의 봉사 활동

초기 50일 동안의 동원 인원

계	해경	경찰	소방	군	공무원	주민	방제 업체	자원 봉사	방제 조합
24,807	133	500	71	1,710	541	8,232	470	13,196	87
1,025,345	9,370	25,617	13,990	128,169	50,422	230,702	16,493	557,136	2,816

2008년 6월 초 성과

- 참여 자원 봉사자 : 115만 7980명
- 성금 모금액 : 112억 78만원
- 12월 49만명, 1월 33만명, 2월 15만 7552명, 3월 9만 2583명, 4월 4만 1114명, 5월 3만 2040명, 6월 637명

자원봉사의 특징

- 남/녀/노/소 고른 참여
- 다양한 참여 형태 : 개인, 환경/시민단체, 기업, 학교, 군인/경찰 등
- 인터넷의 역할이 크게 증대 : 자원봉사 카페, 인터넷 신청 등
- 기상 악조건을 이겨낸 인간 승리
- 조직적인 봉사 활동 가능: 태안군을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 지휘 본부
- 정부 차원의 봉사활동 지원 : 자원봉사 인증제, 연말정산 혜택 부여 등
- 그 결과 1년이 못되어 대부분의 해안에서 유출된 기름을 제거해 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음.

5. 제언

- 유류유출의 영향은 지속적이므로,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.
-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관심도 병행되어야 함.
-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함.
-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.
-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'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'을 이끌어내야 함.